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 및 연체경험에 따른 소비생활 관련 성향 및 태도

김 정 훈* (원광대학교 가정복지정보전공 교수)

이 은 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심 영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카드 사용 변수들에 따라 이들의 소비생활 관련 태도 및 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잠재적인 신용카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은 인천의 I대학교, 청주의 S대학교, 익산의 W대학교 등이며, 조사결과 총 434부의 질문지가 분석을 위한 최종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질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신용카드 사용 및 연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과, 구매행동 경향, 구매충동제어, 신용에 대한 태도, 금전관리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 중 60.4%가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1개를 소유한 사람이 21%, 2개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15.7%로 나타났다. 카드를 소유한 사람 중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로 나타났으며, 연체경험이 있는 사람은 28.9%로 나타났다. 연체이유로는 돈이 모자라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62.5%), 연체기간은 1개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74.4%). 연체횟수는 1회가 44.7%, 2회가 26.3%로 나타났고, 연체대금 지불방법은 스스로 벌어서 갚는 경우가 53.8%, 부모님께서 갚아주시는 경우가 30.8%로 나타났다.

둘째, 신용카드를 소유한 사람이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즉각적 구매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충동의 적극적 제어 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를 소유한 사람이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신용의 위험성을 덜 인식하고, 조건적으로 신용을 허용하는 경향이 더 크며, 신용을 현대인의 필수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다.

셋째,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저축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연체경험 비율도 더 높고, '돈이 모자라서'와 '다른 용도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신용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낮았으며, 학생들이 빚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학생 신용사용 부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